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성장 지원 ‘한뜻’

전주시, 엠와이소셜컴퍼니·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라이콘 펀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펀드 운용사들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로 했다.

시는 지난 27일 펀드 운용사인 (주)엠와이소셜컴퍼니(대표 김정대),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김현대)과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 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임팩트 투자사인 (주)엠와이소셜컴퍼니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라이콘 펀드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시와 (주)엠와이소셜컴퍼니,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전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12억 원 이상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함께 참여한 (재)



전주시는 지난 27일 펀드 운용사인 (주)엠와이소셜컴퍼니,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성장을 지원하는 라이콘 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투·융자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번 라이콘 펀드에 1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센터장 오성현)와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 발굴된 기업을 펀드 투자로 연계할 수 있도록 힘을 계속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창의·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투자가 이뤄져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협약기관들과 협력해 전라적인 투자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안전한 도로·보행환경 조성 기반 마련

전주시의회, 김학송 의원 발의 작업구 정비·관리 조례안 원안 가결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학송 의원(조촌, 여)과, 혁신동·사진이 제출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

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작업구 점검 및 긴급정비 △안전관리 △관리대상 작성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학송 의원은 “노후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된 맨홀로 인한 보행자 사고, 차량 파손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강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조촌동 주민자치위·9개 자생단체, 경로위안 행사

전주시 조촌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림)와 9개 자생단체 회원들은 지난 27일 주민센터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위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초부터 계획하였으며 국주영은 도의원, 송영진·김학송·신유정 시의원을 비롯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는 각종 대회 수상과 함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며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주민자치프로그램(노래, 라인댄스)의 식전 공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케익 커팅식 및 어버이 은혜 노래합창, 아침부터 자생단체 회원들이 손수 준비한 중식대접과 함

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경림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작은 보답이지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며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자생단체에게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향 조촌동장은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고생하신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자생단체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동민 모두가 화합하는 자리가 돼 기쁘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세사기 피해 예방·세입자 경제적 부담 줄인다

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일반 시민은 6,000만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 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533가구에 1억1,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시비를 포함한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보증금 2억 원 기준 평균 45만원(부채비율에 따라 상이)인 보증료를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게시글을 참고하면 되며, 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전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신규 소각장 건설 방안 모색 선진 견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양주·아산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 방문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운철)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주시 신규 소각장 건설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와 충청남도 아산시의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을 비교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각종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타 지자체의 다양한 소각시설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전주시에 최적의 신규 소각장 건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양주권 자원소각시설과 민간소각시설을 방문해 열분해 용융설비를 활용한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

했다.

해당 시설은 일일 2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며, 최신 소각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아산 생활자원처리장에서는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을 둘러보고, 일일 200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스토커식 소각 방식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운영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운철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각 지자체의 선진 시설 운영 사례와 기술을 분석해, 전주시에 가장 적합하고 친환경적인 신규 소각장 건립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6~27일 전주시 신규 소각장 건설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와 충청남도 아산시의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을 비교 견학했다.

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

하고 마련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주거환경 청소지원 사업 추진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청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가정의 위생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 가정 중 주거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취약한 가정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의 가정 방문과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협약을 맺은 전문 청소업체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며, 천연 약품을 활용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청소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청소지원원은 단순한 정리나 청소만을 대상으로 청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가정의 위생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대상 가정 중 주거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취약한 가정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의 가정 방문과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협약을 맺은 전문 청소업체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며, 천연 약품을 활용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